현불 논단

불교, 미래세대에 투자하라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미래세대 실종, 불교의 위기
치열한 고민과 대응은 미약
성과주의 매몰된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 성장 기다리지 않아

오늘 있어야 내일도 있는 법
미래세대 있으려면 투자 선행
어느 자녀가 장성해 나타나나
절실함 거들어주는 관심 '간절'

최근 갑작스런 카카오톡을 받았다. 우리 학부 학생이 보내온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랑이야기, 널디나(nerdina)의 데뷔 EP(Delicate daydream)'이라는 제목을 붙인 공유링크였다. 불교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음악도 한껏 즐겼던 모양이다. 공식 데뷔앨범이라니. 반갑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 학생이 미래에 훌륭한 뮤지션이 돼, 공연을 마치고, 관중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미래를 꿈꿔본다.

필자가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인문학이 위기라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대학들이 저마다 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이 코가 석자인 까닭이다. 불교 공부는 더 심한 위기이다. 출가자가 급감한 현실, 불교를 공부하려는 미래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대학 사회 전체가 그렇고, 젊은 출가자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위기감은 매일 절박함으로 치달린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실종, 불교 미래의 위기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정작 그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대응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기만 하다. 유독 우리 사회는 성과를 중시한다. 그렇지만 성과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결실이다. 한때라도 관심이 소홀하면 잎이 시들고, 때를 놓치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피지 못한 꽃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받으면서도 인내로 색다른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를 대신할 미래세대이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듯, 성과주의 사회가 생각하듯 원할 때마다 훌륭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꿈 때문에 번민하고 방황도 해야 하는 것이 미래세대인 까닭이다.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관심을 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다. 향후 100년 아니 10년만 기약하려 해도,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심을 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의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다. 저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길을 걷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지켜줄 더 많은 버팀목이 교육현장에선 절실한 까닭이다. 저들이 그리고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미래세대로서 불교계의 현장을 짊어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불교계가 좀 더 투자하고, 관심을 주고, 기다려 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가득해진다.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통문화를 대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이 살아있어서 오늘이 제대로 작동하고, 내일도 살아있어서 내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현재의 문화이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문화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 전통문화답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진다. 때문에 교육은 그리고 미래는 당장의 현실이다.

어느 자식이 장성해 듬직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오던가? 배밀이할 때, 첫걸음마를 뗄 때, 사춘기를 건널 때, 세상과 사회를 향해 번민을 거듭할 때, 아낌없이 거들고 관심을 나눈 긴 기다림 끝에서야 장성한 자식이 되는 법이다. 실종돼 가는 미래세대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님들일 것이다. 절실함을 거들어주는 관심이 간절하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운명 · 행운은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 별자리 등에 매달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21세기가 되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별자리 등 여러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쁜 징조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결코 나쁜 징조가 가져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행복한 곳도 아니요 괴로운 곳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행복해질수도 있고 불행해 질수도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 예쁜 사람도 미운 짓 하면 미워지고, 못생긴 사람도 좋은 일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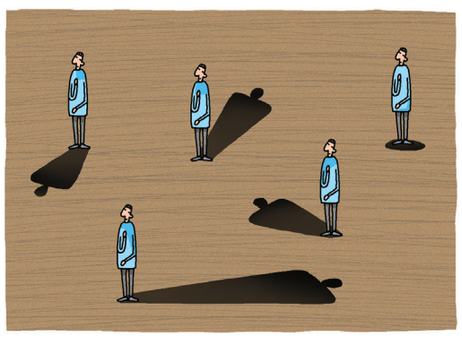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결국은 자신의 행위와 마음자세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위' 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행운인 것 같지만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앞에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늘이나 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도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운명과 행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행운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운은 내 행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앉아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멈춰 서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행운은 누워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행운 또한 움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운도 따라 움직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지방선거 당선인, 불교 공약 지켜야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료됐다. 이번 선거는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시 · 도의회 및 구 · 시 · 군의회 의원과 교육감 · 교육위원까지 새롭게 선출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장이었다. 당선인만 4131명에 달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17명의 당선인 중 불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종교와 무관하게 국가적 소임을 맡은 이들이기에 종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자들이 불자정치인에게 기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신자들에 비해 전통문화 보존과 종교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개인의 종교와 상관 없이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지하고 있거나,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당선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역구에 속한 봉선사를 찾아 경청하고 소통하며 전통문화 보존의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과 김태흠 중남도지사 당선인도 전통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역시 불교계와의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모인다.

일견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종교화합을 이룬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과제가 당선인의 종교나 그간 행보에 따라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달 뒤 다가올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 불교의 숙원과제가 아닌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자비 손길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의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4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독립 이후 최악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현재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름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지난 6개월간 경유 가격은 230%, 휘발유 가격은 137% 상승했다.

무엇보다 의약품 부재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노령 ·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필수적인 의약품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의약품까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한 스리랑카인들의 안식처인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에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한 한국불교 교류 총괄 책임자이자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정치상황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받는 스리랑카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을 위한 모연'을 시작했다.

모연금은 전액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에 사용되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국적기를 활용, 스리랑카로 배송될 예정이다. '보시이타(布施利他)' 정신으로 꺼져가는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자들의 보시행렬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